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미 구직 포기 증가…노동 참여율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국채 금리 변동 없어…이번주 FOMC 회의록 발표 대기
- YahooFinance: SK 하이닉스, 금요일 미 상장…2백80억 공모 추진
- Bloomberg: 미 반도체 주식 다시 반등
- YahooFinance: 달러 안정세…엔화 40년만에 최저치
- Bloomberg: 스페이스 X와 테슬라 합병 움직임

[오일]
- YahooFinance: OPEC+ 생산량 증가 합의에 오일가 하락

[인공지능]
- WSJ: AI 빅테크들, “고용 창출한다”로 말 바꾼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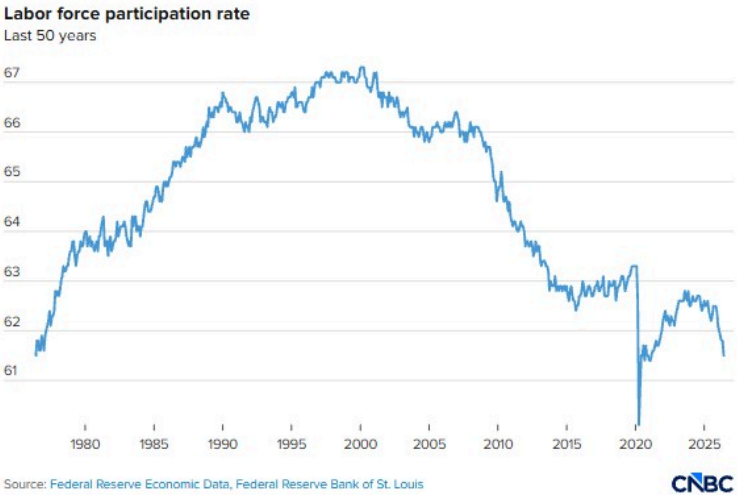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CNBC: 항공 여행, 선선한 가을 등 비성수기 수요 증가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## [미국 경제]

**CNBC: Job seekers giving up: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alls to lowest in 50 years, outside of Covid era**
**미 구직 포기 증가…노동 참여율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**

- 6월에 미 실업률이 하락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자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이다.
- 고용된 인력과 구직자를 포함한 노동 참여율은 지난달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(팬데믹 시절)이라 가장 낮았다고 연방 노동통계국은 밝혔다.
- 실제 6월 노동 참여율은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난 197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. 6월 노동 인력은 무려 72만개 감소했다.




기사

**[미국 금융]**

**CNBC: Treasury yields edge lower as investors look ahead to FOMC meeting minutes**
**미 국채 금리 변동 없어...이번주 FOMC 회의록 발표 대기**

- 연준의 지난 정례회의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되고 현재 터키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는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.
- 10년물 국채 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도 못 미친 4.475%를 기록하고 있다. 2년물 국채 금리도 거의 떨어지지 않은 4.12%에서 거래 중이다.
- 30년 금리는 4.987%를 기록하고 있다.

| SYMBOL | COMPANY | YIELD | CHANGE |
|---|---|---|---|
| US10Y | U.S. 10 Year Treasury | 4.485% | +0.006 |
| US1M | U.S. 1 Month Treasury | 3.67% | UNCH |
| US1Y | U.S. 1 Year Treasury | 3.943% | -0.001 |
| US2Y | U.S. 2 Year Treasury | 4.133% | +0.002 |
| US30Y | U.S. 30 Year Treasury | 4.997% | +0.016 |
| US3M | U.S. 3 Month Treasury | 3.79% | +0.023 |
| US6M | U.S. 6 Month Treasury | 3.95% | +0.013 |

기사

**YahooFinance: SK Hynix seeks $28 billion in US IPO listing as memory maker rides AI wave**
**SK 하이닉스, 금요일 미 상장...2백80억 공모 추진**

-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수요를 겨냥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. 이번주 금요일 상장한다.

- 오늘 월요일 공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 신고서에 따르면,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시장에 보통주 1,779만 주를 공모해 약 280억 달러(약 38조 원)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.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 등 주요 외신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식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.
- SK하이닉스는 이번 IPO로 확보한 자금을 구체적으로는 한국 내 생산 시설 확대와 함께, 차세대 고성능 칩 제조의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(EUV) 노광 장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.

기사

**Bloomberg: Chip Stocks Rally in AI Trade Revival After Plunge**
**미 반도체 주식 다시 반등**

- 인공지능 강세장 지속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했다. 이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지수는 1.15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업계 투자 붐이 견고한 실적을 이끌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단기 급락세가 멈췄다. 특히 브로드컴은 애플과 2031년까지 맞춤형 칩 공급 파트너십을 장기 연장했다는 소식에 주가지수 상승에 한몫했다.
-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나스닥 상장 마케팅에 본격 착수했으며, 투자자들은 내일 화요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.




기사

**YahooFinance: Dollar edges up; keeps yen pinned near 40-year lows**
**달러 안정세…엔화 40년만에 최저치**

- 오늘 월요일 일본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.
- 반면 미 달러화는 지난주 고용 지표 둔화로 연방준비제도의 즉각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찾았다.
- 이날 엔/달러 환율은 162.3엔 안팎에서 거래됐다. 이는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(엔화 가치 기준 최저)이었던 지난주 기록인 162.84엔을 조금 밑도는 수치다.

기사

**Bloomberg: Are SpaceX and Tesla Hurtling Toward a Merger?**
**스페이스 X와 테슬라 합병 움직임**

- 일론 머스크의 대표 기업인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글로벌 투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.
- 2026년 현재 두 회사의 오랜 투자자들은 양사의 합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. 10년 전 일론 머스크가 두 기업 간의 연관성이 "매우 희박하다"며 합병 필요성을 부인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흐름이다.
- 최근 스페이스X는 투자자들에게 "향후 거래에서 상당한 양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"고 발표해 대형 인수합병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.

기사

**[오일]**

**YahooFinance: Oil falls after OPEC+ agrees to raise output targets**
**OPEC+ 생산량 증가 합의에 오일가 하락**

-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가격 인하와 OPEC+의 8월 증산 합의,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이란 전쟁 이전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.
-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0.06% 내린 배럴당 72.08달러에 거래됐다.
- 서부텍사스 중질유유(WTI)는 0.1% 하락한 배럴당 68.62달러를 기록했다.

기사

**[인공지능]**

**WSJ: Big Tech Has Suddenly Flipped on the AI Jobs Wipeout Scenario**
**AI 빅테크들, “고용 창출한다”로 말 바꾼다**

-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던 빅테크 기업들의 경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. AI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, 비즈니스 리더들이 '인력 감축' 대신 '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'을 강조하며 태도를 바꾸고 있다.
- 실제 EY-파르테논 조사에 따르면, AI로 인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상한 CEO 비율은 지난해 1월 46%에서 올해 5월 20%로 줄었다.
- 그러나 이들의 발언과 달리 현장에선 실제로 감원이 일어나고 있다. 정작 직원을 해고한 자금을 AI 투자에 쏟아붓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다.

기사

**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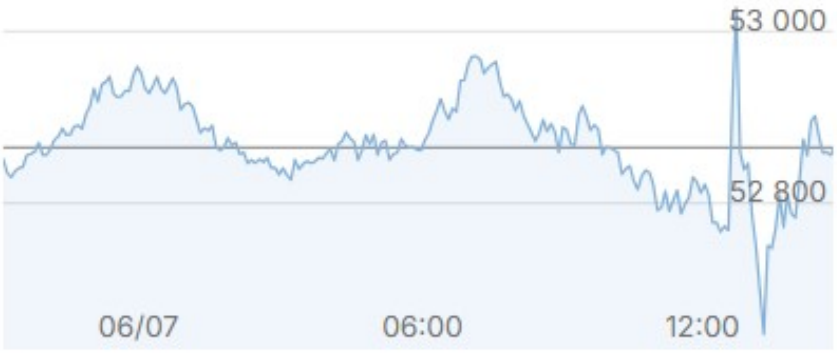
**CNBC: Record heat, crowds drive offseason boom in international travel**
**항공 여행, 선선한 가을 등 비성수기 수요 증가**

- 폭염과 극심한 인파를 피해 비교적 선선하고 저렴한 가을 등 비성수기에 떠나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.
-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사이의 '숄더 시즌(shoulder season)'과 겨울철 비수기 노선의 공급석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.
- 높은 오일 가격에 피해를 입은 항공사들은 비성수기 운항 확대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올인하는 모습이다.

기사

**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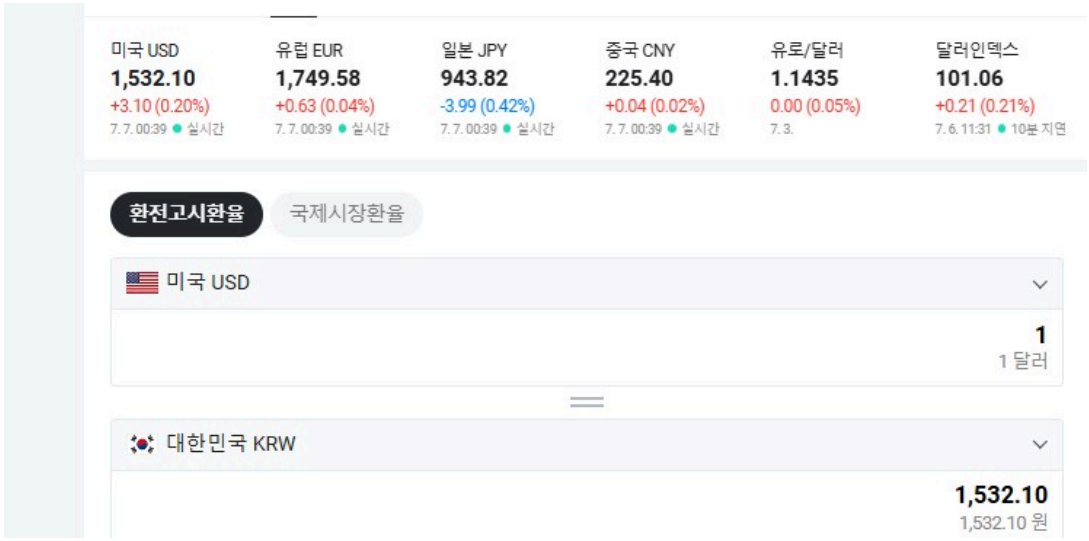
---


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US 30 | 52,876.80 | -23.3 | -0.04% |
| US 500 | 7,533.90 | +50.7 | +0.68% |
| Dow Jones | 52,870.02 | -30.05 | -0.06% |
| S&P 500 | 7,533.71 | +50.47 | +0.67% |
| Nasdaq | 26,165.10 | +332.43 | +1.29% |
| S&P 500 VIX | 15.91 | +0.10 | +0.63% |
| Dollar Index | 100.822 | +0.201 | +0.20% |

## U.S. Treasurys

| | COUPON (%) | PRICE CHG | YIELD (%) | YIELD CHG |
|---|---|---|---|---|
| 30-Year Bond | 5 | -3/32 | 4.998 | 0.018 |
| 10-Year Note | 4.375 | 0/32 | 4.488 | -0.002 |
| 7-Year Note | 4.25 | 0/32 | 4.351 | -0.008 |
| 5-Year Note | 4.125 | 1/32 | 4.226 | -0.024 |
| 3-Year Note | 4.125 | 1/32 | 4.161 | -0.036 |
| 2-Year Note | 4.125 | 1/32 | 4.141 | -0.040 |
| 1-Year Bill | 0 | 0/32 | 3.935 | 0.000 |
| 6-Month Bill | 0 | 1/32 | 3.952 | 0.020 |
| 3-Month Bill | 0 | 1/32 | 3.780 | 0.021 |
| 1-Month Bill | 0 | 2/32 | 3.665 | 0.053 |
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